

“退溪先生の學統과 竹川先生の位相”

李完裁*

目次

- I. 머리말
- II. 退溪先生の學統
 - 1. 퇴계의 학문 연원
 - 2. 퇴계 학문의 요점
 - 3. 퇴계학의 流脈
- III. 竹川先生の位相
- IV. 맺는말

I. 머리말

竹川先生이 退溪先生을 찾아 뵈고 師弟의 인연을 맺은 사실에 대해서는 「竹川先生年譜」 41세 條에 비교적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래에 이를 소개해 보자.

겨울에 퇴계 선생의 제자로 입문하였다. 퇴계께서 한번 보시고는 깊이 장려하시고 인정하였다. 당시 퇴계 선생은 『朱書節要』를 초하고 계셨는데 선생(竹川)께서 이르시기를 “학문에 들어설 길은 전적으로 朱子에게 있다”고 하시고 수업을 허락하셨다. 공부를 마침에 선생(竹川)이 오랫동안 부모를 떠나 있었기에 돌아가고자 하자 퇴계께서 節要를 한 秩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늦으막에 좋은 친구를 만났더니 갑자기 헤어지게 됨에 어찌 한마디 말이 없으리오.”하고 詩 다섯 首를 지어 줌으로써 그 뜻을 전하였다.¹⁾

* 영남대학교 명예교수

1) 『竹川先生文集』 卷之六, p. 233.

라 하고 이어 퇴계 선생이 지어준 다섯 수의 시를 기록하고, 서로 헤어진 후의 사정을 다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헤어진 후의 그리운 정이 함께 있을 때 보다 훨씬 더한 바가 있었다니 편지를 보내주시니 어찌 그 반가움을 이겨낼 수 있으리오. 나는 墓祀 때문에 며칠 동안 추위를 무릅쓰고 다니느라 몹시 지쳤더니 돌아와 누워지내면서 여러 가지로 조섭하여 겨우 탄 병은 나지 않게 되었오. 그 곳 地黃을 보내주어 감사히 잘 받았오. 그러나 걱정은 몸이 이미 낡은 집처럼 이르러졌으니 약효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소. 열흘 찬 서리(十寒)의 비유는 지당하고 지당한 말이오.

대저 道가 넓고 넓으니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 것인가? 오직 聖賢의 가르침이야 말로 따라야 할 길인데 그 가운데서도 지극히 절실하고 긴요한 길을 구한다면 朱子보다 나은 것은 없을 것이니 진실로 평생토록 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오. 이 道理로 하여금 항상 마음과 눈(心目) 앞에 있도록 하여 잠시도 떠나지 않게 한다면 아마도 인생의 큰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오. 늙은 나처럼 한갓 헛된 소문만 나고 끝내 실질적인 연음이 없게 되지는 않을 것이오. 目錄을 배껴 주시겠다고 참으로 고맙소. 그러나 이것은 아직 완성된 책이 아니니 절대로 남에게 보여서는 아니되오. 전에 써 준 詩가운데 몇 개 고쳐서 別紙에 써 보내는 바이오.²⁾

선생은 삼가 가르침을 받고 節要를 깊이 연구하였고 혹 알지 못하는 곳이 있으면 따로 問目으로써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퇴계의 답서가 있다.

위의 기록으로 살펴 볼 때 竹川先生이 陶山에 체류한 것은 그다지 오랜 기간은 아닌 듯 하다. 아마도 이른 겨울에 가셔서 月餘동안 체류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竹川先生이 陶山에서 돌아온 후 師弟간에 주고 받은 편지는 『竹川先生文集』에는 「上退溪先生問目」이라는 제목아래 『朱書節要』에 대한 의문점 84개 조를 질의한 긴 問目的 편지가 있고 역시 「上退溪先生」이란 제목만 기록한 채 내용을 잃어버렸다고 기재한

2) 『竹川先生文集』 卷之六, p. 234.

上書目이 있다.³⁾

『退溪先生文集』에는 卷十五, 第四十張에 「答朴上舍光前」, 「尹秀才欽中」이란 두 사람 이름으로 앞에서 소개한 朱書가 ‘공부의 가장 절실하고 긴요한 책이고 이를 종신사업으로 하여 도리가 항상 심목(心目)간에 있겠끔 하면 인생의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는 내용을 실고 있다.

이상의 왕복 서찰로 살펴 보면 퇴계의 일방적인 가르침은 찾아 볼 수 있으나 竹川께서 퇴계의 가르침을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다. 그리고 퇴계의 저술에는 理氣哲學에 관한 것이 많다. 그런데 竹川의 저술에는 理氣說을 전문으로 다룬 論說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퇴계 선생과 竹川 선생의 師承관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II. 退溪先生の學統

한 학자의 학통을 밝히려면 그 학자의 학문 淵源과 학문 내용과 그리고 그 流脈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퇴계와 같은 위대한 학자의 학통을 제한된 지면에서 자세히 언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과 관계되는 한에서 극히 간략하게 퇴계의 학통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1. 퇴계의 학문 연원

학문 연원은 대체로 師弟간에 이루어진 학문적 授受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연원을 따지게 되면 곧 배운 스승을 가리키게 된다. 그러나 학문이 字句해석의 정도를 벗어나 깊은 진리의 傳承관계를 따지게 되면 그 연원

3) 『竹川先生文集』卷之三, pp.92~143.

의 문제는 간단하지 아니하다. 제자의 학문적 조예가 그 스승을 훨씬 능가하게 되면 그 제자는 그 스승의 학문세계에 만족할 수 없게 되고 스승도 또한 온전한 학문 연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에 道統淵源에 시비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는 두드러지게 훌륭한 학자가 있어 현세의 인물 중에서 배울만한 스승을 찾지 못하게 되면 지나간 역사적 인물에게서 정신적 학문적 맥을 구하게 된다. 퇴계 선생이 바로 이러한 인물이었다.

퇴계 선생에게는 뚜렷한 스승이 없었다. 어려서는 성명미상의 村老에게 글자를 익히고 좀 자라서는 삼촌인 松齋 李堧公에게 글을 배웠다고 한다. 그러나 퇴계 선생의 학문은 진작 독자의 경계에서 고민하던 중 만나게 된 것이 주자였다.

주자의 학문을 알게 된 퇴계의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고 따라서 주자에 대한 퇴계의 숭앙이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주자가 편찬한 『性理大全』을 입수하여 그 탐독에 몰입되어 한 더위를 의식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앞의 竹川 선생의 연보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많은 성현들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朱書節要』가 학문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절실하고 요긴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퇴계 선생의 학문 연원은 곧 朱子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2. 퇴계 학문의 요점

퇴계의 학문적 저술은 방대하다 그 방대한 저술들이 하나 같이 깊고 자세하다. 따라서 그 한 가지 문제만이라도 자세히 밝히려고 하면 여간한 학문적 정력으로서서는 불가능 할 만큼, 학문적 깊이를 가진 문제들이다. 이렇듯 깊고 어려운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 흔히 말하듯이 나무는 보되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져들게 되어 퇴계 학문의 본질을 놓쳐 버리기 쉽다. 따라서 여기서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퇴계학의 근본 목적 또는 핵심을 내 나름대로 정리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퇴계학은 전통유학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 있다.

퇴계학은 주자학의 계승이라 했거니와 주자학은 宋學의 집대성이고 宋代 철학의 특색은 한 마디로 전통유학의 철학화라고 할 수 있다. 漢代 이래 정치적, 윤리적 효용으로 작용해 왔던 유학이 불교와 도가 사상의 철학성에 자극되어 유학 자체의 이론적 심화를 도모한 것이 宋代哲學이다. 그들은 우주와 인생의 근원인 性理를 문제 삼고, 그 해명의 논리로 理氣論을 구사했다. 퇴계학의 첫째 특성도 性理, 理氣의 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퇴계학은 윤리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자 했다.

퇴계와 奇高峰 사이에 있었던 退·高四七論辯은 조선조 성리학의 白眉를 이루는 대표적인 논변이거니와 이 논변의 골자를 요약하면 奇高峰이 理氣渾淪看과 氣發一途說을 주장한데 반하여 퇴계는 理氣分開看과 理氣互發說을 주장한 차이에 있다.

退溪가 왜 굳이 理氣를 分開하려 하고 理發을 고집해야만 했던가?

理는 순수한 善으로 윤리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이 理를 氣와 渾淪看하여 自立性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윤리의 근거가 흔들려지기 때문이었다. 유교의 사상적 특성은 윤리에 있다. 그러한 유교에서 그 근거가 박탈되고 만다면 유교의 성립 근거가 뒤흔들린다고 할 수 있다. 퇴계가 理의 獨自性을 강조한 이유는 곧 윤리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자 함이고 나아가서는 유교의 성립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여기에 퇴계철학의 깊은 의미가 있다.

셋째로 퇴계학은 윤리적 주체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퇴계의 학문을 敬의 철학이라고 특징 지우는 학자들이 있다. 그 만큼 퇴계학에 있어서 敬은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퇴계는 “敬은 聖學의 시작이요 끝이다.”⁴⁾라고 하기도 하고 “敬은 위와 아래를 꿰뚫고 動과 靜을

4) 『退溪集』 卷之七, 第十七張

관통하는 것이다.”⁵⁾라고 하였다. 敬이 어째서 그러한 기본 원리가 될 수 있는가? 『心經附註』에서 程敏政은 “心은 몸의 主宰이고, 敬은 心의 主宰이다”(心者, 一身之主宰也. 敬者, 一心之主宰也.)⁶⁾고 하였는데 퇴계도 이 말을 잘 인용하였다.⁷⁾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주재하듯 깨어있는 정신인 敬은 우리의 마음을 주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敬을 강조한 퇴계의 철학은 윤리적 주체를 확립함으로써 도덕적 인격체를 실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은 곧 윤리도덕을 사상적 특성으로 하는 유교의 본래적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다.

3. 퇴계학의 流脈

퇴계학의 流脈에 대해서는 대체로 세 갈래로 분류하여 파악해 왔다.

첫째는 鶴峰 金誠一로부터 敬堂 張興孝→葛菴 李玄逸→大山 李象靖→定齋 柳致明으로 이어지는 安東地方 중심의 流脈이고, 둘째는 西厓 柳成龍으로부터 愚伏 鄭經世→修巖 柳軫→江臯 柳尋春으로 이어지는 尙州지방 중심의 流脈이고, 셋째는 寒岡 鄭述로부터 眉叟 許穆→星湖 李瀼→性齋 許傳 등 畿湖南人으로 이어지는 流脈이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퇴계의 학문적 영향은 전국적인 것이었다. 湖南지역에서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으니 高峰 奇大升, 竹川 朴光前, 山天齋 李咸亨은 모두 드러난 제자들이다. 따라서 湖南지역에도 퇴계의 학문적 流脈은 엄연히 존재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천명은 앞으로의 한 과제이다.

5) 全上, 卷之七, 第二十張.

6) 『心經』 卷首, 「心學圖解」.

7) 『退溪集』 卷之七, 第十九張.

III. 竹川先生の位相

이번 학술 발표회를 주최한 측에서 설정한 이 주제에 있어서 竹川先生の位相은 아마도 退溪學統에 있어서의 竹川의位相을 밝히려는 뜻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퇴계와 죽천 두 선생의 관계 위상을 규정하기에 앞서 죽천 선생의 전인격적인 위상을 규정하고 그 관련하에서 퇴계학통과의 위상을 살펴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竹川 선생의 인격적 위상에 대해서는 先賢들의 몇 가지 규정을 통해서 찾아 볼 수 있다.

年譜에 의하면 竹川 선생이 돌아가신 후 선생의 贈職에 대한 儒生들의 요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요구에서 선생의 인품이 잘 규정되어 있다.

1. 戊子湖南儒生安洙等上疏請節惠之典條에 禮曹判書 趙種永이 回啓하기를 「朴某(竹川)는 學問이 純篤하고 節義가 卓越하여...」라 하였고⁸⁾

2. 甲午年(純祖34년) 9월에 全羅, 慶尙, 忠淸 三道儒生安洙等上疏陳請 贈正卿賜諡之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이듬해 憲宗元年 乙未에 吏曹判書 金箕殷이 回啓하기를 「朴某(竹川)는 淵源이 的正하고 學問이 純篤하고 節義가 炳烈하여 先輩諸賢이 모두 推重하고...」라고 하였다.⁹⁾

3. 牛山(隱峰) 安邦俊 선생이 쓴 竹川先生行狀의 끝 부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아! 우리 湖南은 본래 文獻의 고장으로 일컬어졌다. 高麗末로부터 本朝에 이르기까지 학문으로 세상에 이름이 난 분은 오직 金河西, 奇高峰, 李一齋, 柳眉巖과 우리 선생(竹川)뿐이다. 河西의 學問操行과 節義文章은 우뚝히 높아서 미칠 수 없고 高峰의 議論의 明快함, 一齋의 剛義不屈함과 眉巖의 博學

8) 『竹川先生文集』 卷之六, p. 259.

9) 全上 卷之六, p. 261.

多聞함은 또한 세상에 드문 바이다. 그러나 踐履가 독실한 점에 있어서는 저 세 분(高峰, 一齋, 眉巖)이 우리 선생과 비교하여 누가 더 넉넉한가를 알지 못하겠다.¹⁰⁾

고 하였다. 위 세 규정이 내용상으로 대동소이하나 세 규정 가운데 두 번째 규정이 가장 포괄적이고 원만한 규정인 듯 하다.

즉 竹川선생은 1.학문의 淵源이 올바랐고, 2.학문이 순수하고 철저 하였으며, 3.節義가 찬란히 빛났다는 것이다. 吏曹判書 金箕殷의 回啓文은 全羅, 慶尙, 忠淸 三道 儒生들의 集約된 견해를 반영한 것이니 竹川 선생의 位相에 대한 이 규정은 당시 儒生들이 공인한 位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에 입각하여 이러한 규정이 내려질 수 있었을까? 이를 한 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1. 연원이 올바른 점

여기서 말한 연원은 학문의 연원이다. 竹川 선생은 朱子學의 嫡統을 이은 退溪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니 그 연원의 올바름은 더 따질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학문이 순수하고 철저한 점

이 項이 竹川 선생의 학문 및 인격적 位相을 드러내는데 가장 핵심을 이루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항에서 선생의 학문내용의 일단을 더듬어 보고자 한다.

竹川 선생의 유고는 많이 산일된 듯 현재 문집 1책이 전한다. 그것도 대부분 부록이고, 저술은 17편의 賦가 文集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이들 賦에 대하여 두루 언급하기는 어렵고 대표적으로 제일 첫머

10) 全上 卷之七, p. 279.

리에 수록된 『正心賦』를 번역 소개함으로써 竹川 선생의 학문의 일단을 들어내 보고자 한다.

「正心賦」

오직 마음은 動靜의 근원에 해당되고 神明의 헤아릴 수 없는 작용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대저 方寸을 主宰하여 사물과 접촉하는 것인데 자칫 홀려가는 데로 내맡겨 檢束하지 아니하면 감정에 이끌리는 위험이 없지 아니하다. 이렇므로 마음을 바르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니 속을 울곧게 하여 외부에 대응해야 한다. 천지의 변화에 바탕하여 마음은 크게 착한 것이니 舜이라고 더 풍부히 부여받고 盜跖이라고 덜 부여받은 것이 아니다. 실로 부여하기를 균등하게 하였으니 그 본체가 광대하기 그지 없도다. 사람이 이로써 三才에 참여하니 본래 의지함도 편벽됨도 없으며 모든 이치를 융화하여 함께 간직했도다.

오직 大人만이 본래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여 작용이 신비롭고 본체가 참되어 바로잡을 필요도 없이 거울처럼 맑고 저울대처럼 바른 법이다.

아! 氣質은 천만가지로 다르니 그 본 모습을 저버리지 않음이 얼마이던고? 슬프다. 七情의 착란과 얽힘이여 光明한 마음이 티끌에 가리워지고 그 正大함이 사사로움에 갇혀지나니 진실로 中正으로써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마도 남는 바가 적을 것이다.

그러므로 君子의 학문은 工夫가 새어남을 경계하나니 먼저 格物致知하여 性을 알고 人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허다한 정신적 병통에는 謹獨이 藥方文이다. 그러나 세밀하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병의 유무를 알지 못하게 되고, 혹 한 가지 욕망이 움직여 스스로 자신을 검속하지 아니하면 덩치 않은데도 속이 달아 오르고 춤지 않은데도 몸이 떨리게 되어 온갖 일들이 뒤집혀지는 법이니 마땅히 일이 있기 전에 마음을 간직하여(存心) 본성을 기르고(養性) 마음이 움직일 때 자세히 관찰하여 편벽되고 사사로운 병통을 제거하여 본연의 公明함을 간직하도록 해야 하느니라. 喜怒哀懼의 모든 감정을 達道를 따라 節度에 맞게 하고 四肢百体の 움직임을 마음을 따라 보살피게 되면 本체가 확립되어 우주와 합일되고, 作用이 행해져서 사물마다 제 몫을 다할 것이니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死灰(식은재)나 槁木(마른 나무가지)처럼 되지 않으리니 무엇 때문에 다시 총명을 가리울 것이며 애써 시득함을 막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리오?

말하기를 天德(타고난 덕)은 主敬 공부에 말미암는다 하니 조정을 바로잡고, 백성을 바로 잡으며 먼 데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나니 이는 修齊治平의 근본에 합하고 時中의 원리에 합당한 것이다. 大學의 가르침은 三代의 盛時로부터이나 孔子에 이르러 그 뜻이 분명해졌나니 오직 曾子만이 깊이 이 뜻을 알아 經文을 부연하고 만사의 근거를 드러내었느니라. 세상이 어지러워짐에 董子(仲舒)만이 겨우 알았고, 위대한 程朱가 끊어진 전통을 이어 항상 이 뜻에 부지런하였으며 西方人(橫渠 張載를 뜻하는 듯)에게 말하기를 「학문에 있어 안타까운 바는 末學이 사색을 좇아 耳目으로 내닫는 것이다.」고 하였다.

높고 낮음을 혼돈하니 슬픈 일이다. 理와 心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또한 天地의 中心을 얻었고 古금이 한 원리이니 聖賢의 가르침을 받들고 三省을 부지런히 행할 지로다. 때로 主人翁(마음)을 불러 깨우침이여! 그릇에 가득한 玉을 받들 듯 진실로 하루라도 내 마음 바로 잡으면 아마도 임금의 마음도 발라지리라.¹¹⁾

이 「正心賦」 한 편만으로도 竹川 선생의 학문의 性向을 이해할 만 하다. 宋代 철학이 유학의 철학화라고 했거니와 철학화는 이론화인 동시에 내면화를 동반했다. 그리하여 宋代 철학의 학문적 관심사는 주로 性理의 문제, 心性の 문제에 쏠리게 되었다. 朱子の 『近思錄』 眞西山의 『心經』의 출현 등이 모두 이런 학문적 추향 속에서 생겨났다. 그들은 내적 순수성을 확보함으로써 도덕의 기반으로 삼으려 하였고 이러한 학문이야말로 爲己의 學, 또는 道學이라고 생각하였다.

竹川 선생의 「正心賦」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竹川 선생은 진작부터 性理의 學, 爲己의 學에 관심이 깊었다.

年譜 12세 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進士公이 과거가 급하다고 생각하여 詞章에 힘쓰게 하였으나 선생은 사사 로이 『性理大全』을 구하여 공부의 여가에 함께 읽고 연구하였다. 처음에는

11) 『竹川先生文集』 卷之一, pp. 26~28.

이해할 수가 없었으나 오래 계속함에 많은 理會가 있었다.¹²⁾

라 하였고 22세 條에

당시 士禍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理學을 말하기를 꺼리고 諸生들이 詞藻를 숭상하고 방탕하기 짝이 없었다. 선생은 모(角)를 세우지는 아니했으나 그렇다고 세속과 뒤섞이지도 않았으니 과거 공부를 하면서도 홀로 爲己의 學問이 있음을 알고 慨然히 분발하여 玩索 탐구하여 깊은 경지에 나아갔다.¹³⁾

고 하였고 32세 條에

竹川 위에 精舍를 짓고 爲己의 學에 專心하였다.¹⁴⁾

고 하였고, 37세 條에는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선생이 衣冠을 바로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이 학문을 하는데는 記誦의 습관만이 아니라 爲己의 道가 있나니 만약 학문을 하려고 한다면 어찌 爲己의 본뜻을 생각지 않으리오?”¹⁵⁾

라고 하였다. 竹川 선생이 평소에 이렇듯 性理의 學, 爲己의 學에 관심이 깊었으므로 41세에 늦으막히 寶城에서 安東까지 퇴계 선생을 찾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퇴계 선생을 뵈우고 竹川 선생의 爲己의 學은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승화되었으리라.

竹川 선생의 학문이 순수하고 독신했다는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竹川 선생의 행적에서도 능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正心賦」는 竹川 선

12) 『竹川先生文集』 卷之六, p. 225.

13) 全上, p. 228.

14) 全上, p. 230.

15) 全上, p. 232.

생이 퇴계 선생을 뵈옵고 물러난 그 이듬해의 東堂試에 합격한 답지로서 이 「正心賦」를 읽으면 은연중에 퇴계 선생을 연상케 하는 점이 없지 않다.

“心이 동정의 근원이요, 神明의 오묘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고 규정한 「正心賦」의 서두에서 『心經』을 부모처럼 神明처럼 존중했다는 퇴계의 태도를 연상케 하는 바이고, “七情의 착란으로 本性的의 광명을 가리운다.”는 표현에서 퇴계의 主理의 입장을 연상케 한다. “모든 마음병의 치료법은 謹獨에 있고 한 가지 욕심에라도 이끌리어 제재할 줄 모르면 덩지 않아도 열이 나고 춥지 않아도 몸이 떨리게 되니 存養省察으로써 本性的의 公明함을 지켜야 한다.”는 표현에서 퇴계의 근엄한 수도의 자세를 느끼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工夫의 근원을 敬에서 구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퇴계의 敬사상의 계승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竹川 선생의 賦 가운데는 이 「正心賦」외에도 「獨寢不愧衾賦」(혼자 자면서 이부자리에 부끄럽지 않음을 노래함) 「衣錦尙褻賦」(비단옷을 입고 홑옷으로 가리움을 노래함) 「致思如掘井賦」(생각을 극진히 하는 것이 샘을 파는 것과 같음을 노래함) 「夢周公賦」(周公을 꿈에 뵈옵음 노래함) 등 많은 賦가 있거니와 이들 賦의 제목만으로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거니와 실제 그 서술이 篇마다 절실하게 戒懼謹慎하게 정신적 순일성을 확보하려는 간절한 노력이 엿보이는 珠玉篇들이다.

「正心賦」에서 竹川先生의 사상이 退溪先生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점이 많다고 했거니와 「正心賦」외의 다른 글에서도 退溪先生의 학문적 風味를 질게 느끼게 하는 점이 있다. 한 두 가지 예를 들면, 「獨寢不愧衾賦」에서 “잠깐 사이를 조심하지 아니함으로써 한 생각이 舜과 蹠으로 갈라지는 법인데 학문에 뜻하는 저네들이 누가 이 뜻을 모르리오마는 오직 純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니라.”(由頃刻之不謹, 一念分乎舜蹠. 彼有志於爲學, 孰不知斯意, 唯純誠之難得.)¹⁶⁾고 노래했다. 이 글의 이미지는 竹川先

16) 『竹川先生文集』 卷之一, pp. 39~40.

生이 退溪先生을 하직하고 떠나갈 때 송별의 詩로 읊어준 五章의 詩 가운데 한 章으로 “爲己의 學問은 반드시 克己에서 닦아야 하나니 오직 放心을 求하여 제 마음 간직하는데 있느니라. 우리들이 누가 이 뜻을 모르리오마는 어찌 참으로 아는 데는 거리가 먼 것인가?”(爲己須從克己修, 存心惟在放心求, 吾儕孰不知斯意, 胡奈眞知太不侔)¹⁷⁾하는 뜻과 너무나 흡사함을 볼 수 있다. 또 「致思如掘井賦」에서 “聖人이 되는데 길이 있으니 생각을 극진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知作聖之有道, 宜莫要於致思)¹⁸⁾하기도 하고 “聖人을 배우는 길에 있어서 공부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하되 반드시 오래 하는 것이 귀한 법이다.”(蓋學聖之工程, 學必要乎有思, 思必貴乎悠久)¹⁹⁾고 하였다. 退溪先生의 말씀에도 이와 흡사한 것이 있다. “聖門의 학은 마음에 求하지 아니하면 어두워져 얻음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생각을 함으로 隱微한 데 통해야 한다.”(蓋聖門之學, 不求諸心, 則昏而無得, 故必思以通其微)²⁰⁾라고, 하고 또 「聖學十圖」筭에서도 “孟子의 말씀에 心의 작용은 생각(思)하는 것이니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하였습시다…… 생각(思)과 배움(學)은 서로 밝히고 서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孟子之言曰, 心之官則思, 思則得之, 不思則不得也……思與學, 交相發而互相益也.)²¹⁾고 하였다.

이 두 先生의 주장을 음미해 보면 표현이 조금 다를 뿐 그 주장의 밑바탕에 흐르는 사상은 완전히 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竹川先生이 비록 陶山에 머무는 기간은 짧았다 할지라도 竹川先生이 退溪先生에게서 받은 학문적 영향은 至大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退溪先生의 영향을 통하여 순화되고 심화된 竹川先生의 학문은 그 당시 및

17) 『竹川先生文集』 卷之六, pp. 233~234.

18) 『竹川先生文集』 卷之一, p. 45.

19) 全上 p. 96.

20) 『退溪集』 卷之七, 第七張.

21) 『退溪集』 卷之七, 第七張.

후세 사람들에게 순수하고 철저했다는 評判을 받게 되었다고 믿어진다.

竹川선생의 학문적 순수성은 이론면에 그친 것이 아니었다. 爲己之學 즉 道學은 이른바 실천과의 합치를 요한다. 竹川선생의 행적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年譜 30세 條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綾城 고을 군수는 선생의 친구였다. 여러 번 편지를 보내 방문해 주기를 청했다. 선생이 한 번 갔더니 그 군수가 억지로 붙들어 10여 일을 머물렀다. 그 때 어여쁜 여인을 골라 잠자리를 모시게 하였다. 4·5일 밤을 지내면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군수가 여인에게 묻거늘 여인이 사실대로 대답했더니 군수가 선생의 손을 잡고 탄복해 마지 않으면서 “형의 몸가짐은 옛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였다.²²⁾

牛山 安邦俊 선생이 竹川 선생 行狀에서 그 踐履의 篤實을 찬양했거니와 바로 이러한 생활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竹川 선생의 踐履의 독실함은 벼슬 생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年譜에는 벼슬살이 때의 사실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다.

咸悅縣監 시절의 일이다.

당시의 監司가 營內의 한 婢에 혹해서 그의 말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다 들어주었다. 그러므로 모든 고을에서 그 婢에게 다투어 뇌물을 갖다 바쳤다. 全州府尹도 많은 뇌물을 받쳤다. 이 일이 御史에게 알려져 지적을 받았는데 그 御史는 竹川 선생과 가까운 사이였다. 이 일로 선생은 監司와 府尹에게 미움을 사서 파직이 되었다.²³⁾

또 懷德縣監 때의 일이다.

縣監으로 부임하니 왕실의 일가 되는 사람이 奴婢 문제로 시골 백성과 송사가 벌어져 열 한 사람의 縣監을 거치면서까지 미결로 끌어난 사건이 있었다. 이전의 縣監들이 모두 왕실 일가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미

22) 『竹川先生文集』, 卷之六 pp. 229~230.

23) 『竹川先生文集』 卷之六, pp. 245~246.

뒤은 것이었다. 선생이 확연하게 백성이 옳은 것으로 판결하여 결말을 지었다.²⁴⁾

역시 懷德縣監 시절의 일이다.

자식이 없는 한 과부에게 여종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과부의 조카가 그 여종을 빼앗으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監司의 권위를 빌려 큰 죄명을 씌워 그 여종을 죽이려 하였다. 이에 선생께서 “어찌 監司를 두려워하여 죄없는 사람을 죽이게 하리오.” 하고 監司에게 여러 차례 그 억울함을 보고했다. 이에 監司가 화를 내어 선생을 꾸짖자 선생이 당당하게 그 시말을 밝혀 그 부당함을 주장하자 監司도 마침내 부끄러워 하며 그 여종을 풀어 주었다.²⁵⁾

竹川 선생은 본성은 지극히 유순하였으나 일의 是非를 따지는데 있어서는 지극히 엄정하여 추호의 불의도 용납치 않았으며 신념껏 행동하였다. 이러한 사실도 모두 竹川 선생의 踐履의 독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節義가 찬란히 빛난 점

竹川先生은 壬辰亂과 丁酉再亂에 모두 義兵을 일으켰다.

年譜 壬辰 67세 條에 “倭變이 갑자기 일어남에 義兵을 일으켰다.”는 표시 아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당시 태평세월이 오래 지속되고, 백성들이 군대를 보지 못했던 터이라, 모든 고을이 왜병이 온다는 소문만 듣고도 도망치고 무너져 10여 일에 敵이 서울에까지 들어가게 되니 재앙을 예측할 수 없었다. 眞寶縣監을 지낸 任啓英, 綾城縣監을 지낸 金益福, 蘭谷 鄭侁이 와서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장차 어찌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다. 선생이 이에 각 고을에 檄文을 띄워 鄉兵

24) 同上, p. 247.

25) 同上, p. 247.

을 모집하여 精兵 7백여 명을 모았다. 선생은 병으로 나서지 못하고 任啓英을 義兵將으로 하고 門人 安邦俊을 體府使인 鄭澈에게 보내어 軍務를 물어 보고 門人 文緯世를 시켜 軍량을 담당케 하고 鄭思悌를 從事로 삼고 만아들 根孝를 參謀를 삼아 錦山과 茂州를 절단하고 星州와 開寧을 지키는데 모두 공이 있었다.²⁶⁾

하고 丁酉 72세條에 “적이 다시 本道를 침범함에 힘써 義兵을 모았다.”는 표시 아래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선생이 가족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가려 하는데 南原이 이미 함락되어 길이 막혔다 하므로 牛山 安公과 天鳳山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적이 이미 서울에 들어가고 임금의 수레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으며 인심이 흉흉하여 적에게 가서 붙는 자도 있고 적을 이끌어 와 사람을 죽이는 자도 있어 죽고 사는 것이 경각에 달렸다고 하였다.

生員 朴士吉이 농촌으로부터 와서 말하기를 “나라의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신하된 사람이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 있으리오. 마땅히 倡義하여 죽음으로써 임금을 섬겨야 할 것이다.”고 함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이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지가 오래이니 義兵將으로 받들면 민중의 지지를 얻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선생이 말씀하기를 “난리는 날로 급하고 병은 날로 심하니 내 곧 죽을지 로다. 그러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맹세코 이 도적들과 한 하늘아래 살지는 않으리라.”하고 마침내 군사와 軍량을 모으기로 약속하였다.²⁷⁾

竹川 선생은 丁酉再亂이 난 그 해 11月 18일에 돌아가셨으니 병이 위중한 때에도 나라를 위해 義兵을 일으켰으니 선생의 節義가 찬란히 빛났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상의 검증으로 竹川 선생은 그 학문의 연원이 올바르고, 그 학문이 순수하고 독실했으며 節義가 찬연히 빛나는 인격의 소유자라는 규정이

26) 『竹川先生文集』 卷之六, pp. 250~251.

27) 同上 p. 254~255.

정당한 것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IV. 맺는말

퇴계 선생의 학통에서 첫째 퇴계의 학문 연원은 朱子이고, 둘째 학문 내용은 1. 종래 유학의 철학적 이해, 2. 윤리의 근거 확립, 3. 윤리 도덕의 주체 확립으로 요약하고, 셋째 그 流派에 있어서 鶴峰 金誠一, 西厓 柳成龍, 寒岡 鄭述 계통의 학맥을 소개했다.

그리고 竹川 선생의 位相에 대해서는 先儒의 규정에 따라 1.연원의 올바른, 2. 학문의 순수함과 독실함, 3. 節義의 뚜렷함을 검증했다. 그리고 竹川先生의 그러한 학문과 인격이 퇴계 선생의 교화에 크게 힘입었다는 점을 밝혔다.

여기서 이들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퇴계 선생의 학문은 성리학적 학문 원리에 입각하여 유학적 인생관 즉 도덕적 인간의 확립을 도모하려 하였고, 竹川 선생의 삶이 또한 퇴계 선생이 추구했던 그 삶을 충실하게 실천한 것이었다.

여기서 두 선생의 사상과 삶은 首尾가 一貫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竹川 선생의 독실한 踐履는 퇴계 선생의 삶의 모습에서 더욱 철저하게 배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퇴계 선생의 학맥을 일반적으로 앞에 든 3학파로 분류하나, 湖南지방의 제자로서 竹川 朴光前 선생, 高峰 奇大升 선생, 山天齋 李咸亨 선생 등이 계셨으니 필연코 湖南지역에도 퇴계 선생의 한 학맥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 점에 대한 천명은 앞으로의 한 과제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朴光前, 『竹川先生文集』

李滉, 『退溪集』

眞德秀(宋), 『心經』

李滉 刊, 『心經附註』

투고일 2002. 12.24 심사시작일 2003. 1.6 심사완료일 2003. 1.18

Abstract

ToeGye's scholastic mantle and the status of
JookChun

Yi, Wan-jae

This thesis clarifies academical relations between ToeGye and his pupil JookChun, Park-Guang Zhen. The summary of content is as following.

I classified Toe Gye's scholastic mantle into 3 parts. That is---
first, academic origin, second, academic details, third, academic school.

1. ToeGye's academic origin, he declared, it came from JuJa.

2. His academic details can be summarized into 3 points.

First, he accepted the theory of JuJa and made traditional confucianism philosophized.

Second, he emphasized the 'li'(理) and made firm ground of ethics.

Third, he asserted 'Gyung'(敬) and made it clear that he established an ethical subject.

3. In the various school of ToeGye's study, there are mainly three schools:(HakBong Kim-Sung-il's) school, (SueAe Liu Sung Ryong's) school, (HanGang Jung-gu's) school. but I commented (Go-Bong Gi Dae Sueng, JookChun Park-Guang Zheun)-oriented (Ho-Nam) school can also be called one of ToeGye's study.

About (JookChun Park-Guang Zheun)'s status,

1. He learned under ToeGye's instruction, his study can be called to be originated from ToeGye's.

2. By analyzing his written materials, his study is sincere and faithful to ToeGye's.

3. From the fact that he raised an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loyalty when Japanese troops invaded Korea over the two times, we can notice that he definitely adhered to his principle.

In the conclusion, I think JookChun's status as commented above, came from the result that he tried to follow ToeGye's example and learn his scholarship and personality.

Keyword

ToeGye, JookChun, Park-Guang Zhen, JuJa, li(理), Gyung(敬), HakBong Kim-Sung-il's, SaeAe Liu Sung Ryong's, HanGang Jung-gu's, Go-Bong Gi Dae Sueng, JookChun Park-Guang Hyeun, Ho-Nam.

退溪先生の學統과 竹川先生の位相

이 완 재

退溪先生の 학통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을 하면, 첫째 퇴계의 학문 연원은 宋代의 유교를 철학화하여 性理學을 집대성한 朱子이고, 둘째 학문 내용은 1. 종래 유학의 철학적 이해, 2. 윤리의 근거 확립, 3. 윤리 도덕의 주체 확립으로 요약하고, 셋째 그 流派에 있어서 鶴峰 金誠一, 西厓 柳成龍, 寒岡 鄭述 계통의 학맥을 소개했다.

그리고 竹川 선생의 位相에 대해서는 先儒의 규정에 따라 1. 연원의 올바른 탐구, 2. 학문의 순수함과 독실함, 3. 節義의 뚜렷함을 검증했다. 그리고 竹川先生の 그러한 학문과 인격이 퇴계 선생의 교화에 크게 힘입었다는 점을 밝혔다.

요컨대, 퇴계 선생의 학문은 성리학적 학문 원리에 입각하여 유학적 인생관 즉 도덕적 인간의 확립을 도모하려 하였고, 竹川 선생의 삶이 또한 퇴계 선생이 추구했던 그 삶을 충실하게 실천한 것이었다.

여기서 두 선생의 사상과 삶은 首尾가 一貫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竹川 선생의 독실한 踐履는 퇴계 선생의 삶의 모습에서 더욱 철저하게 배운 것이라고 할 것이다.

끝으로 퇴계 선생의 학맥을 일반적으로 앞에 든 3학파로 분류하나, 湖南地方의 제자로서 竹川 朴光前 선생, 高峰 奇大升 선생, 山天齋 李咸亨 선생 등이 계셨으니 필연코 湖南지역에도 퇴계 선생의 한 학맥이 면면히 흐르고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주제어

退溪, 性理學, 朱子, 湖南, 竹川 朴光前, 高峰 奇大升, 山天齋 李咸亨